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총보안하이텔·나우누리 PSPD 유니威尔·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pspd.org /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납세자운동본부 담당: 이경미: T. 723-4253, taxpayer@pspd.org)  
(사이버참여연대 담당: 김보영, T. 725-7105, saekyol@pspd.org)  
제 목 재벌 변칙 증여 심판  
날 짜 2000년 12월 15일 (목) (총 4쪽)

## 보도자료

### 재벌변칙증여 심판 1차 시민행동 정리집회

-제 할 일 못하는 국세청장에게 보수지급정지 선언-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시위 진행-

-12월 18일(월)부터 100일간 2차 시민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2000년 12월 15일 (금), 낮 12시 종로 2가 서울 YMCA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2000년 12월 15일(금) 낮 12시 종로 2가 서울 YMCA 앞에서 재벌 변칙증여심판 1차 시민행동 정리 집회를 가졌다. 이어서 오후 1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는(<http://nts.go.kr>) 온라인 집회가 열렸다.
2. 오늘 집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재벌변칙증여 심판 1차 시민행동을 정리하고, 다음주 월요일(2000년 12월 18일)부터 다시 2차 시민행동이 시작됨을 선포하기 위하여 열린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회에 걸쳐 퍼포먼스를 포함한 집회를 열고, 국세청장에게 8통의 공개 서한(국세청은 답하라)을 발송했으며, 2주간 국세청 앞 1인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삼성의 변칙 증여와 수백억원대의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이와 같이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세청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평한 과세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쳐사라고 주장

하며 대한민국 유리지갑 일동 명의로 국세청장의 보수 지급 정지를 선언하는 페포먼스를 공연했다. 또,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로지 재벌을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5. 한편 1시부터 국세청 사이트 게시판(<http://nts.go.kr>)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집회'가 열렸다. 오늘 온라인 집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족벌세습심판 시민행동 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samsung/>)를 통해 네티즌들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서, '주변사람들에게 시위참가 메일보내기, 배너달기, 다른 게시판에 시위 홍보하기' 등의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다.  
집회 방식은, 게시판에 사회자가 등장하여 지시를 내리면 네티즌들이 일제히 구호와 발언 등을 올렸고,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6. 참여연대는 다음주 월요일(2000년 12월 18일)부터 국세청을 향한 2차 100일 시민행동에 착수, 윤종훈 회계사의 1인 침묵시위를 참여연대 대표단과 회원, 타단체 회원, 일반 시민들의 릴레이 시위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100일 릴레이 시위는 매일 낮 12시 국세청 앞에서 1시간 동안 전개될 것이다.

#### ■별첨자료■

1.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성명서>

## 국세청은 시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재벌변칙증여 시민행동은 계속된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권의 행사는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과연 과세권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행사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신분인 청년이 수조원의 재산을 불리면서도 단 16억원의 세금만 납부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삼성의 수많은 변칙증여 중 단 한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정식으로 탈세제보를 하자, 국세청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평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인가?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한 지 7개월 반이 지나도록 ‘조사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5일에 있은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에서 그동안 재벌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9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재벌의 주식이 동상황을 조사하여 변칙증여를 막겠다’고 밝힌 대국민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사실상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재벌변칙증여심판 1차 시민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재용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한달 간 국세청장에게 8통의 공개편지를 보냈고 2주간의 1인 침묵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국세청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모르쇠와 베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이 과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심지어 ‘세금문제가 불어져 국세청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로써 국세청은 ‘공권력에의 도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만천하에 보여준 셈이다.

국세청의 공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며 재벌이 준 것은 더 더욱 아니다. 국세청의 공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공무원을 흔히 공복이라 부른다. 즉,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특정 재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유리지갑들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재벌의 변칙 증여에 과세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위임한 국세청장 옷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내 주부터 참여연대의 모든 회원, 삼성의 변칙증여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100일간의 2차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재벌변칙증여 심판과 형평과세를 위한 시민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국세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